

# 고흥군, 농식품 공모유치 등 통해 사업비 100억원 규모 확보

### 품질 좋은 농산물 가공·유통·식품소재화 할 수 있도록 지원 생산농가 안정적인 소득기반 마련·경쟁력있는 식품기업 육성

고흥군은 전남도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사업 등 2021년 농식품 유통분야 공모사업에 3개 업체가 최종 선정되어, 2020년 공모사업에 이어 올해 지원할 사업비까지 총 100억원 규모를 확보하였다.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가공·유통·식품소재화 할 수 있도록 지역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식품기업에 지역 농산물 가공 및 시설·장비 확충을 지원함으로써, 생산·가공·유통을 일원화하는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시장

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식품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흥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을 통해 두원농협(20억원)에 비건 조식시설 DSC(위성싸일로) 신축을 지원해 들녘별 고품질 고품쌀 생산에 직접 접을 두었으며,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사업'을 통해 깎마늘, 깎양파, 슬라이스 대파를 생산하는 (유)모든에스에프(6억원)에 증숙기, 탈피기, 건조기 등 식품 전처리 시설을 지원해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물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해 왔

다.

아울러 군 자체사업을 통해 풍향농협(4억원)에 유자·마늘 출하하기 우선으로부터 상품성과 신선도를 확보하기 위한 '유자·마늘 공관장 비가림 시설', 두원농협유자가공사업소(5억 7천만원)에 생산농가 원물수매 증대 및 가공 능력향상을 위한 '유자 가공공장 오페수처리시설', 고흥석류전환경영농조합법인(1억원)에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비효율적인 생산공정을 개선하기 위한 '석류 제품 제조설비'를 지원하여 지역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고흥 대표 농

특산물인 유자·석류·마늘의 안정적인 유통시스템 구축하였다.

2021년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생산한 벼를 고품질 고품쌀로 도정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갖추도록 흥양농협(21억원)에 시설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며,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을 통해서도 유자가공 식품산업에서의 국내의 B2B 시장 공략 다각화를 위해 유자품목의 다양한 식품소재화 시설을 한성푸드영농조합법인(15억원)에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이러한 노력은 작년에 이어 올해 잇따른 농식품분야 공모사업 유치 및 자체사업 추진으로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품목의 생산농가, 가공업체 그리고 행정이 서로 원원하여 국내는 물론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급변하는 물류·유통·상품 시장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값진 성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산림비전 2030 발표



### 보성군, 산림 경영 혁신한다 레저·관광·치유 결합 산림 자원 다양화 등 담야

보성군은 6일 앞으로 10년간의 산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보성군 산림비전 2030'을 발표했다.

'보성군 산림비전 2030'은 산림 경영 혁신을 통한 산림 가치 증진을 목표로 레저·관광·치유를 결합한 산림 자원 활용 다양화, 안전·생태 환경 개선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산림 자원 활용 다양화를 위해서는 △산악형 산림치유휴양마을(단지) 조성, △다기능 산림 복합 관광 단지 조성, △국규제구역의 산악자전거길과 패러글라이딩장 등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재암산자연휴양림 및 치유센터(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차별화 전략, △근강치유 산림 스케이 시설 확충 등

을 추진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산림에너지자립형 휴양 및 마을 단지를 조성하고,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생물권 산불예방 숲 정비 및 방화수립대 조성, △대국민안전시설(사방시설) 등을 확충한다.

산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립입업기술경영센터 건립 유지를 준비한다. △고지대 청정 임산물 단지 조성을 통해 산림업을 규모화 하고 건강식품 개발 지원 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성장도 돕는다. 마을단위 소득사업을 위해서는 △밀원림(蜜源林)과 소독숲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보성=김덕순 기자

## '섬섬여수 옥수수' 사업단 개소...여수시 향토산업 본격 육성

### 2년간 총사업비 20억원 투입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추진



여수시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섬섬여수 옥수수 사업단' 개소식을 열고 '여수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를 위한 첫발을 뗐다.

시는 지난해 전남도 주관 향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도비 11억 원 포함, 내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향토산업 육성에 나선다.

섬섬여수 옥수수 농촌융복합산업화 사업은 대한민국 남부지방 옥수수 거점을 목표로 옥수수 상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가공시설 구축, 홍보 마케팅, 유통 다각화 등을 추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혜옥 농

업기술센터소장을 사업단장으로 운영 위원회 8명, 실무추진단 9명, 자문위원회 6명 등 23명의 사업단이 구성됐다.

이번 사업으로 재배농가, 가공업체,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등과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옥수수 콘, 국수, 분말, 장류, 조청, 과자, 차 등 다양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고 상품화된 제품은 Non-GMO 학교급식,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수출, 흡수팩 등으로 유통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옥수수 농촌 융복합산업화를 통해 재배농가와 가공업체 간 계약재배로 판로확대와 농가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순천시,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기관표창

순천시가 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덕)과 함께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 우수지구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순천은 교육부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를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이 협력하는 구조의 교육플랫폼 순천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를 구축·운영하였다.

협력센터를 통해 지방행정-교육행정간의 협력구조를 만들고, 마을교육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여 마을단위의 교육거버넌스를 마련하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교육협력체계 강화, 교육과정 지역화 확대, 청소년 자기주도형 정책 활성화를 통해 순천을 새로운 의미의 교육도시, 지역의 변화를 이끄는 인재가 길러지는 지방교육자치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광양시, 포스코그룹 취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 11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양시가 포스코 그룹 취업아카데미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 그룹 취업을 지원하는 교육생들을 위해 2019년 광양시와 포스코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해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교육생들의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기 교육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3월부터 6개월간 주5일 일

종교육을 실시하여 포스코 그룹 상·하반기 공개경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교육내용은 직무기초, 현장실습, 인성, 모의면접 등 포스코 그룹 공개 채용 시 필요한 과정으로 추진된다.

참가 자격은 관내 거주 청년(만18세 이상 39세)으로 학력은 무관하나,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은 교육생 선발과정 시 우대하며, 금속·기계·전기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가 유리할 수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